

비엔날레 성공 개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시민 체감 문화정책 확대

광주시, 국제 미술 도시 도약 나선다

광주비엔날레 9월7일 개막...20개 파빌리온 설치 문화외교 플랫폼 활용 현대미술관 분관, 문화 상징물로 건립...“일상이 예술” 체감형 정책 추진

광주시가 올해를 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을 통해 '국제 미술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창설 30년을 맞은 제 15회 광주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소리-동시대의 울림'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광주 곳곳에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20여 개 파빌리온

을 설치해 도심에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확장하고, 개별 국가 파빌리온을 문화외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또 지역 작가를 위한 '광주 파빌리온', 시민 전시물 해설사 확대, '1 시민 1 입장권' 구매캠페인 등을 통해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돕는다. 광주시는 지역 미술계 숙원인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중앙 부처, 국회 등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자산동 신양파크호텔 부지 등을 활용해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추진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은 현대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전시, 관련 연구, 장·제작, 국제미술교류 촉진 등의 기능을 맡고, 무등산권역 역사·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해 일반화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미술작품까지 갖춘 문화 상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국제 시각미술도시 광주'의 3각 축으로 조성하겠다는 포

부를 드러내고 있다. 시는 올해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정책도 강화한다. 희경루, 광주향교,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GMAP) 등 문화·역사 자원이 몰린 광주공원 앞에 '청춘 문화 누리터'를 운영하고, 광주 국제 미술 전람회를 통해 신진 작가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전람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 사무국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대인 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 피크닉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른 문화행사 등과 연계도 추진

한다.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인 '아트 벙커'도 20곳을 추가 조성한다. 특히 광주 대표 관문인 송정역에서는 '미디어아트 폭포', 신기술 융복합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올해는 시민 눈높이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 미술 도시 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민주가족 합동 세배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원로 등이 지난 11일 광주YMCA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세배' 행사에서 서로 세배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중앙공원 1지구 공원 조성 차질없이 추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전임 대표 구속, 사업과 무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주)는 “전임 대표 이사가 지난 8월 2016년 발생한 개인적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 이사 변경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와 롯데건설(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임 대표 이사의 구속 사건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무관한 사안인긴 하지만,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신임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중앙공원(1지구) 조성 및 롯데개설 시그니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지역 핵심사업인 중앙공원(1지구)의 토지보상 및 신규공원 조

성을 위해 어려운 건설경기 속 1조원이라는 사업비 조달을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금융채권단의 안정적 지원과 수많은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 무엇보다 광주시민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롯데건설과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의 도심 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계속

30억원 편성 인건비·사업 개발비 등...다음달 25일까지 신청

광주시는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사업개발비 통합 지원 등 3개다. 광주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에 따라 30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편성했으며, 인건비 22억5000만원과 사업개발비

7억5000만원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한 인건비 지원정책도 올해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기준 일반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비율로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광주맞춤형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심사한다. '광주맞춤형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정부 사회적가치지표(SVI)를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

해 설정한 것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지원유형을 선택해 작성한 신청서를 3월 25일까지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검증은 마친 후 4월 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과 지원 규모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관을 참고하면 된다. 신장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에 결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철도망 구축 올해 5512억 투입

전년비 1028억 증가...호남고속철 2단계·노후 역사 시설 개선 등

올해 전남도내 철도사업에만 모두 5512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 등이다.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4840억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전철화 사업은 노반공사 등 96%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9억원이 확보돼 역사 신축과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382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320억원이

확보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반세기 만에 선상 역사로 거듭나는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 이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조기 착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호남고속철도(2단계)와 남해선 철도가 계획기간에 개통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라이앵글 순환철도 등 도내 철도망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